

충현

월간 「충현」 제 8 호 1974년 3월 10일 발행

발행인 김 창 인 ◇ 우리 교회 성구 ◇
 편집인 한 명 옥
 서울중구충무로 5가 36 나의 힘이 되신 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 호와여 내가 주를
 충 현 교 회 사랑하나이다.
 (27) 9937 · 9738 (시편 18:1)

□ 라디오 방송 안내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 (매 월요일) 오후 6시 45분~7시

■ 만 나 ■

성도의 책임

시 34/12-14

인간의 가치는 돈·지식·기술·권세
 용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커
 보여도 실상은 그리 경장한 것이 아
 니니다.

사람의 연적, 사람의 가치는 그 사
 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인격은 귀하고 악한일을 하는
 사람은 악마처럼 악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여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별가치가 없습니다.
 인격의 가치는 선한 일을 하되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하여 성공할 때에 귀하게 되는
 것이며 선한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자신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가치있는 인격자의 삶이겠습
 니까?

첫째 악을 버려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 악입니다. 유심에 젖어
 자기의 양심과 빙과 절제와 쫓사람의
 사랑과 나아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이 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합할
 수 없는 탐심이 악입니다. 시기하는
 것이 악입니다. 거짓(의식)이 악입니
 다. 치우치는 것이 악입니다.

이런 악은 대부분 습관화되었거나
 우리 생활과 적절되었기 때문에 끊어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의 끊어 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입니
 까? 아랫사람은 위사람에 대해 감사
 하며 주안에서 순종하고 위로하는 것
 입니다. 위사람은 아랫사람을 물들이
 주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같은 선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
 니라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획 위에는
 뜨거운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
 다. 또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부처전함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
 고의 밤을 흘리며 돈과 시간을 마치
 희생할 때에만 선한 일을 할 수 있
 습니다.

세째 화명을 찾아 좇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신의 교만
 을 부리기나 자기 기분에 날뛰며 욕
 심을 부리기나 자기가 잘못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화명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학교의 교과 싸움이 심
 해진 때 이단만 아니면 서로 화목합
 시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목
 하기를 힘쓰면서 여생을 살아 감시하
 어려울 일을 당하면 수고의 밤을 흘
 리며 죄의 물질을 마치고 뼈가 없
 다는 억울한 참에도 달게 받으시라.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우리 아버지 하
 님께서 생명의 복과 지혜·물질·성령
 의 은혜에 부족함이 없는 크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1974년 1월 1일 당회장 김 창인 목사님의
 설교에 설교 말씀 요약>

☆ 본교회 설립 21~25주년 성구 ☆

너희 성도들이 여호수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 31:9)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천국일꾼의 정예화를 위한 금년도 수련회

1973년 12월 17일 19명의 우리교회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역자 수련
 회가 시작됨으로써 1974년도 중반 달
 기수련회의 막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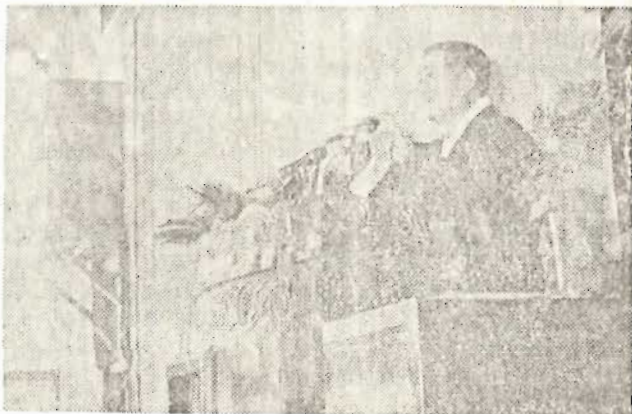
이어서 2월 13일까지 계속된 행정
 경습회·교사수련회·제직수련회·성가부
 수련회·적권수련회·인원수련회·평신도
 수련회 등 무려 10여가지의 수련회는
 금년에 새로이 일련의 인관성과 체계
 를 세워 시도하였던 바, 과거 그 이
 는 때보다도 규모와 진행기간이 크고
 길었던 것에 비하여는 대체적으로 성
 공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시편 119편 3절~5절까지의 말씀 중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행하
 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이번 수련
 회의 총 주제로 삼아 실시하였다. 이
 번 수련회에 참가하였던 인원은 연
 4,300여명에 2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
 었으며 강사만도 연 54명에 달 수련
 회 진행일이 19일이라는 우리교회
 헌법에 최대 규모의 수련회이었다.

특히 이번 수련회가 갖는 의미는

여러가지로 풀이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성년 중년
 으로서의 일대 도
 악을 위한 전, 교
 인의 교육과 훈련
 으로 한층 더 정
 예화된 천국 일꾼
 양성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이 인
 초에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교회의
 당면 과제인 전도
 ·천국일꾼 양성·
 성전건축을 성공적

으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는 꼭 필
 요한 온 성도의 한 마음, 한 뜻을 이
 번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보여준 태
 에도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보겠다.
 아울러 이번 수련회의 강령은 대부
 분 적절한 것이었으며 좀더 깊게 다
 룰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세련된



<개회예배를 인도하시는 당회장 김 목사님>

경의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기게 되었
 다는 것도 앞으로 이러한 훈련을 재
 속적으로 실시하려 한다하여도 별 무
 리가 없이 실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도 큰 수확이
 라 하겠다.

성경학원 제 2기생 개강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
 로 세워진 충현 성경학원의 제 2기생
 개강식이 지난 2월 10일 있었다. 지원
 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선발된
 제 2기생 25명(남 5, 여 20)은 앞으로
 6학기(3년)를 다녀야 모든 수업을
 마치게 된다.

현재 지난해 9월에 입학한 제 1기
 생 40여명을 합하여 70여명이 강의를
 받고 있다. 이 성경학원을 위하여 우
 리교회 교역자들로 구성된 7명의 강
 사가 수업을 담당하고있으며 단기 지
 도자 양성기관으로 지도자 양성부(6개
 월과정)와 성경학원 도서관(현재 장서
 1천여권)이 성경학원 부설기관으로 운
 영되고 있다.

대학부 동기수양회 열어

제3회 대학부 동기수양회가 지난 1
 월 28일부터30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
 었다. 동산교회 한 제호 목사님을 강
 사로 모시고 「베누고 확신한 일에 기
 하라!」(히브리 3:14)는 주제로 오후 2시
 부터 10시까지 일련 이번 동기수양회
 에는 일련 1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
 가하여 성경관(홍 성경 목사), 기도관
 (정 상우 목사), 헌신과 기독청년의
 과(양 승달 목사)등의 특강과 찬양
 기도의 등을 통하여 양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대학부
 의 새로운 발전을 꾀하였다.

간절한 기도 필요한 해외선교 상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해외선교부는
 지난해 10월말 두가지 면에서 큰 시
 변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첫째는
 극렬한 이슬람교도들의 무분별한 파괴
 적 행동이었고, 둘째는 우리와 신앙노
 선이 다른 마마사교단이 우리 선교부
 에 대해 일방적인 처사를 행한 것이
 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부는
 이슬람교도들의 공격 목표가 되었고,
 또한 마마사교단으로부터 당교의 통고
 장을 받아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한 영
 광을 위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의 길은 구원을 빚어주시고 계속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 즉
 지난 2월 15일자로 자카르타에서 발

신된 서 만수 선교사의 사신에 따르
 민, 다시 1년을 더 유할수 있는 허
 락을 받게 되었고 늦어도 3월 중순
 에는 북부의 술라웨시 메나도에 도착
 하여 도시와 심을 순회하며 약 2개월
 간 전도한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
 하려는 특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또한 모든 우편물은 중도에서 자주
 분신됨으로 등기로 하여 서 선교사의
 집으로 직접 보내주시기를 마라고 있다
 우리는 정권선교를 위하여 여러가지
 악조건과 싸우고 있는 서 선교사를
 위하여 따뜻한 격려의 편지와 뜨거운
 기도를 쏟아야 하겠다.

집주소: Rev. Paul M. Suh,
 Jalan Mesjid N/A Pejompangan,
 Jakarta, INDONESIA.

노년부 신설

한이비지 할머니들을 위한 노년부가
 중학교의 주일학교의 한 부서로 새로
 이 발족되었다. 주일학교 산하 지도자
 양성부가 성경학원 설립과 함께 성경
 학원에 흡수됨으로써 10부에서 9부로
 되었다. 주일학교는 1974년 노년부를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다시금 10부로
 확장되었다.

노년부의 신설 목적은 인생의 황혼
 전에 접어든 한이비지 할머니들로 하
 여금 천국에 갈 준비를 잘 하길 수
 있도록 도우며 주님을 위하여 조상
 으로서의 책임인 미온 복을 빌수 있
 도록 도우며, 과한 많은 인생의 마지막
 나그네 길에 접어든 의로움을 하
 늘의 소식으로 위로하게 위함이라고
 한다.

70세이상이거나 노년부에 참석할 자
 격을 얻기 위하여 초대부장으로 김
 현을 장로, 지도 교역자로는 김 종백
 목사, 부장에는 김 은호 집사와 김
 윤정 권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중·고등부 신앙 부흥회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너희
 가 믿을 앞에 있는져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를
 주제로 하여 중·고등부 신앙 부흥회
 가 열렸다.

정 상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신 이
 부흥회에는 일련 333명의 학생이 모
 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차 진행 전도사님 별세 교회장으로

1965년 1월 우리교회에 부임한 여
 주님을 위하여 충현 제단에 몸과 마
 음을 다 바치 증정하시므로 차진형
 어전도사님의 장례식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충현교회장으로 엄숙히 거
 행되었다.

김 창인 목사님의 집례로 거행된

이날의 장례식에는 백 외의 많은 조계
 들이 모여 고인의 작별을 슬퍼하였
 다.

고 차 진형 전도사님은 향년 53세
 로 평북 신천에서 출생하시었으며 유
 족으로는 아들 김 경호 집사와 며느
 리 그리고 손자가 있다.



청소년의 문제

지 우 목 천도사

서 언

본 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 시 장기계획으로 내세운 대목표가 있으니 곧 「친국 일꾼을 키우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일에서 오늘날 찾은 시는 주일학교를 일성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자부 주일학교 교육을 강화해왔다. 지난 해 9월 본교회 설립 20주년 전례를 지내면서 물이커보에 과연 그 성과가 놀랍도록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이제 바로 시작인 것이며 이전보다 더욱 매진하지 않는다면 기초 돌만 세우고 마는 건축사업이 되어 버리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가지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빠뜨릴 수 없는 일은 이제까지의 계획과 추진이 만족스러웠는가 하는 반성과 평가이며 또한 미래에 한나라도 확보된 점들이 있었다면 과연 수정해야 하는 용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글의 의도는 본교회에서 친국일꾼이 되고자 주일학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특히 그들이 저니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진단함으로써 치료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속에 그 치료법까지 기술코자 함은 아니고 단지 문제점들만 발견해 냄으로써 온 교회가 그것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고도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1. 신 앙 면

(1) 구원의 확신문제

본 교회 청소년의 1/5정도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여가 설문에 응한 중고등 학생들은 토요일 집회에 나온 자들이며 대학생들도 비교적 교회생활을 오래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실체의 수효는 실로 놀랍도록 많은 것이다.

(2) 예수님의 대속제물 문제

대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은 너무도 중요한 근본교리이다. 그런데 본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신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에 희생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가공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사유하심의 문제

빌자가 이미지에 돌아왔으나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괴로운 일이다. 그런데 이들 3명 중에 1명은 이외의 문제를 해결치 못한 채로 괴로와하고 있다.

(4) 기도응답의 문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왜 응답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이 정복대로 잘못 구한 때문인가. 아니면 응답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가? 아무튼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 중대한 문제이다.

(5) 천국과 지옥 문제

우리 기독교는 영원의 문제를 매우 중시하며 율제가 사는 생활을 나그네의 행할이라 세상을 여관이라 말한다. 따라서 땅에서의 생활이 끝나면 누구나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 중 어느 한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생자로써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믿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큰 열이 아닐 수 없다.

2. 성경 관

(1) 성경의 무오성 문제

보수신학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정복무오함을 믿는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어느 문제에 앞서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2) 성경의 오적 문제

너무도 많은 수효가 성경의 이치를 의심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실제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된다. 본교회의 젊은이들 중 1/3이 성경에 나타난 이치들을 그대로 믿는 일에 주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3) 하나님의 존재 문제

비록 적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20명에 1명 꼴이 넘는 것은 탄식스러운 일이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게 할 수는 없는가?

(4) 동성녀 탄생 문제

이것 역시 기독교의 근본 문제이다. 이것이 부인된다면 인간에게 참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고 만다. 예수님께서 동성녀에게서 탄생하시었는가?

(5)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밝히 말해 주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무오함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시키고 동시에 보다 철저한 성경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3. 윤 리 면

(1) 주일 성수 문제

주일성수에 대해 적 자음스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하신대로 주일을 구별되어 거룩하게 지키게 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2) 주초 문제

모든 부가 공통적이기는 하나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는 주초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자들이 많이 훨씬 넘는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러하기니와 우리 교회는 엄히 중하고 있는 주초이다.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든 급히 그리고 분명히 해결해 줄이 없으면 그대로 방관만을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곧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지경에 이를 것이다.

(3) 하나님의 섭리 문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모든 일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생각지 않는 수효가 1/5이 된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의 언저리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4. 교회에 대한 요구

(1) 사령에 대한 요구

본 교회에 대해 가장 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40명 정도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교회에서 자람을 받아보지 못한다는 대답이다. 새로운 빛을 더해주는 자람을 가운데 자람을 느끼지 못해 원망하면 교회에 오기를 멈추는 자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 기독교는 한 마디로 사랑의 종교이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제로 사랑하라 요구하셨다. 이것에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 재림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한 신자가 되며 참 교회가 되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이 있다고 해도 가까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비애제라고 해서 어느 한 부분에 마비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그 교회의 부흥을 멈추게 하는 것이 되며 더욱 심해져서는 경우는 오히려 쇠퇴를 면치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문제이다.

(2) 교육에 대한 요구

젊은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바는 교회가 그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능동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젊은이들을 무기력하고 위축되게 지도하는 소극적 교육 방법을 오래전 부터 아무 개선 없이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에 대하여서는 교육 일의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은 요구하기를 교회가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교육방법도 더욱 연구해 달라고 한다.

(3) 집회에 대한 요구

이것은 특별히 대학생들이 바라는 요구이다. 그들 대부분이 현재의 대학부 집회형식에 대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고려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들 중에는 우리교회의 대학부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좌지하는 때 오늘날 현실을 사는 그들 대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하고도 필요한 메시지, 곧 복음을 소유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비전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 교회에서 생각하는 비대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대학생들이 사실상 취하지 않는 정신적 상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을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다고 한다.

(4) 시설에 대한 요구

교회의 교육시설에 대한 절대적 부족과 이에 따른 시설확장의 시급성은 새롭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그러나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속히 이를 수 있는 큰 것만을 계획해 놓고 그것 때문에 당장의 시급함을 외면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것은 어느 쪽으로든지 용단을 내려 가장 빠른 시일안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5) 도서실에 대한 요구

본교회가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성경

<표 1>

설 문 내 용	중	교	대	청
(1) 구원받은을 확신하지 못한다.	7.7%	22.0%	21.1%	24.7%
(2)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지못한다.	5.1%	8.5%	13.2%	20.9%
(3)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32.1%	33.9%	31.6%	36.4%
(4)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를 못한다.	39.7%	35.6%	28.9%	31.2%
(5) 지옥이 정말로 있는 것은 아니다.	9.0%	5.1%	18.4%	23.4%

<표 2>

설 문 내 용	중	교	대	청
(1) 성경을 하나님의 정복 무오한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	5.1%	8.5%	7.9%	7.8%
(2) 성경에 나타난 이치들에 대해 의심해 본다.	30.8%	37.3%	28.9%	37.7%
(3)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믿지는 않는다.	5.1%	3.4%	5.3%	7.8%
(4) 예수님의 동성녀 탄생에 의심한다.	7.7%	6.3%	13.8%	11.7%
(5)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어지지 않는다.	2.6%	1.7%	13.2%	14.3%

<표 3>

설 문 내 용	중	교	대	청
(1) 주일을 반드시 성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7%	23.7%	23.7%	14.3%
(2) 천국과 지옥과 담배는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17.9%	12.4%	55.3%	32.5%
(3) 하나님이 믿는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	20.5%	22.0%	18.4%	19.5%

◇..... 이 글은 지난 해 12월 초에 본.....◇
 ◇.....교회 중등부 78명, 고등부 59명, 대.....◇
 ◇.....학부 38명, 청년부 77명의 의견들을.....◇
 ◇.....태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에 의한 것이다.◇

학교를 개교하고 도서실은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귀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지중의 수험은 도시가 온 도서실을 꼭 배우고 친구들이 힘을 다해 값진 책들을 기증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바람직한 점들이다. 그런데 그 도서실을 사용하는 자들은 이왕이면 열람 시간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여 수험에서 들어오는 집중에 대한 조력 문제가 속히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들이다. 또 한가지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이다.

5. 바람직한 일들

(1) 국가를 위한 기도

본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90%가 지금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된 자들의 기도를 언제나 기꺼이 들으시므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신다. 기도하는 자신이 살며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법이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복을 받으며 생존할 수 있다.

(2) 전도에 대한 시명 의식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다. 본교회 자부 주일학교에서 전도하는 열의는 상당하다. 거의 모든 이들(97%)이 전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래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에 약 80명이 대답하기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

(3) 당회장 목사님께 바라는 2가지

① 목사님의 건강에 지대한 관심
 당회장 목사님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는 질문에 공통적인 대답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목사님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목사님께서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불편하신 몸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오래 사시면서 훌륭한 말씀을 더욱 많이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대답이다.

<4페이지에 계속>

◇ 현대신학 강좌 ◇

코페르니크스적 혁명의 기수

바르트

이 종 영 전도사

현대신학의 탄생은 1919년, 독일 남방에 위치한 스위스의 한 교회 서책에서 이뤄졌다.

창시자는 1911년 25세로 그곳에 부임한 젊은 목사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였다. 이 신학사상의 새 전환 선보는 1919년 출간된 그의 로마서 주석으로 표명되었다. 그러므로 한 학자는 칼 바르트(Karl Barth)를 가트키 1세기 헬라이로 기록된 한문의 편지를 20세기인에게 속달로 배달한 자라고 하였고, 어느 카톨릭 신학자는 이 로마서 주석을 가트키 자유주의 사상의 전성기에 종주부를 찍은 신교 신학 내의 코페르니크스적 혁명이라고 하였다.

멜스비르스 신학교 교수인 코넬리우스·반틸(Cornelius Van Til)도 19세기말의 맹목한 자유주의 신학을 어지럽히 데려부순 그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그의 로마서 주석은 「신학자들의 눈이떠서 떨어진 폭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젊은 눈이떠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온 포탄인 뿐이었다.

전국 이 한권의 주석은 바르트로 하여금 새로운 자유주의 신학의 상아탑을 수립하여 바르트의 신학적 세계를 이루게 하였다.

그러면 그 주석의 무엇이 당시와 현금의 신학계로 지진을 경험케 하였는가?

Barth는 어떤 새로운 원칙을 강요함으로써 신학상 실기원을 이루었는가?

첫째, 바르트는 19C 말에 붕괴하였던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많은 부분에 대

하여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그의 스승은 모두가 문화에서 발원한 종교를 가르치는 문화에 입매인 교사들이었다. 그러나 문화의 수준이 높은 독일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영국 및 개발된 불만지와 더불어 성난 짐승처럼 일러싸웠고 마침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그의 이상 세계를 산산히 부서버렸다.

그는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 세상에 내세운 신存在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타자(他者)」로서 만의 하나님을 지지하였고, 19C 자유주의가 윤리의 기초위에 신학을 수립했음에 반하여 바르트는 신학의 기초위에 윤리를 세우려 하였다.

둘째로, 바르트는 그의 주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을 새롭게 한기시키려 하였다. 사실 바르트의 신학이 한동안 현대인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던 것도 바로 그가 인간의 존재의 영역을 멀리 벗어나 있는 신비스롭고 불가사의한 신존재를 말했기 때문이었다.

바르트는 인간이 그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규정지을 수 없는 신을 말하였다. 그의 신은 오히려 인간의 이성을 판단하고 규정짓는 초월자였다. 이러한 신觀은 생의 의미를 인간의 내재의 가능성(도덕의식이나 사랑, 삶의 용기 등)에서 찾으려던 현대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러나 바르트의 신은 역시 만일 교수의 말과같이 人間 이성의 고안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Barth의 신은 인간의 이성적 법규를 초월한 뿐 아니라 기독교의 성경의 제한도

반지 않는 절대 자유자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자신 안에 포함하는 신론적 신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신을 Barth가 말한것은 결코 성경에 충실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대 철학 사상을 투영하고 있는 합리주의와 비합리주의의 변증법적 활용의 결과인 것이다.

셋째로 그는 새로운 계시관을 제출하였다. 그는 인간에게 신의 계시가될 요함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사상들을 「말씀의 신학」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나 그는 계시를 주장하면서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생명의 가운데서 폭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과거의 계시의 기록이요 미래의 계시의 약속으로, 계시에 대한 증거일 뿐이요 계시 자체는 아니고 하였다. 이러한 계시觀은 그의 신학 전체를 지배하는 두개의 차원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키엘케고올과 프라츠 오비백의 역사

판에 깊이 영향을 받은 Barth는 역사를 일반 역사(Historie)와 신앙사(Geschichte)로 구분하였다. 일반사(Historie)란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과거의 모든 역사적 사실들의 총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참역사(Geschichte)는 나에게 실존적으로 부딪히는 일을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며 내 건의를 촉구하는 일들을 말한다.

그런데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와 부활은 신앙사에 속하고 일반사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성경교리들의 초역사성을 주장하면서도 역사적 성경과 역사의 그리스도를 역사과학의 손에 넘겨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그의 계시관이 순전히 주관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진리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만물을 판단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우리는 성경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말할 때에도 성경자체를 표준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적 말씀을 이성조사의 해부대위에 율리 놓아서는 않된다. 오히려 이성자체의 의미와 능력도 성경에서 배워가야 한다.

전국 바르트는 19C 초에 나타나고 전진인 자유주의를 전멸한 신학계의기수였지만 근본적인 면에서 새로운 근대주의에 머무름으로써 정통 기독교에 반기를 든 풍운아였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아쉬움은 그의 계몽주의적이요 인본주의적인 근본태도를 성경의 빛 아래서 교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본교회 교동부지도>

◇ 보아야 할 책 ◇

기도의 능력(POWER THROUGH PRAYER)

E.M.BOUNDS 저
이 정 윤 역
생명의 말씀사, 1971
91p, W200

◇ 토막 상식 ◇

우슬초(牛膝草, Hyssop)

히브리어 예조브에서 온 희랍어 후소포스의 음역을 영어로 Hyssop라고 한다. 아라비아어로 자탄(Zatar)이라고 하는 다년생초본(多年生草本)이다.

이것은 보통 팔레스틴의 들길, 바위 틈에서 자라는데 5-10월에는 흰 수상화(繖狀花)가 된다. 이 수상화의 잎은 향기를 발하며 부식물 또는 약으로 사용된다. 구약시대에는 그 줄기를 묶어서 절제식에 사용하였다(출 12:22, 레 14:4, 6, 51, 52, 민 19:6, 18) 이로부터 정결의 상징이 되었는데 줄기를 묶어 종아지나 양의 뒤통을 문히 털므로써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한다(시 51:7, 히 9:19-22).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죄의 대속을 예언한 것이다.

또 요한복음 19장 29절에는 포도주를 묻힌 해면을 우슬초에 단아서 예수에게 드렸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다윗 묵시(마 27:48)에는 해면에 꿀내에 담았다고 되어있다.

교육전도사 두분 오셔

본교회에서는 새로 이인호 전도사님과 김태원 전도사님을 주일학교 지도교원으로 모시게 되었다. 두분이 다 신학대학 졸업생에 해당중, 이 전도사님은 중등부 지도를 그리고 김 전도사님은 유년부 지도를 맡게 되었다. 한편 유년부의 정기성 목사님과 중등부의 지우복 전도사님은 전경상 관계로 휴양중이시다.

봄날 아침

로버트·브라우닝



메는 봄
날은 아침
아침 일곱시
일찍이 이슬 어리고
종달새 하늘에 날며
달팽이 기어 나오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세상은 평화롭구나!

* 로버트·브라우닝(Robert Browning 1812-89)
태니슨과 더불어 빅토리아 왕조를 대표하는 영국의 시인

◇ 도서실 소식 ◇

많이 이용해 주기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성경학원과 함께 지난해에 문열은 도서실은 자랑하는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각종 주석류와 사전 및 신간 종교 서적이 비치되어 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바라고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서실의 관계로 아껴온 도서 대출을 안하고 있으나 정리가 끝나는대로 곧 대출을 할 예정이다.

세11회 겨울 성경학교

어린이들의 겨울 방학기간을 통하여 실시되어 온 겨울어린이성경학교가 금년에도 지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었다.

금년으로 말한반을 맞아 「예수님을 따라오자!」(히 12:2)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성경학교 기간에는 1일 평균 635명의 학생과 105명의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하여 정성을 쏟았다.

이번에 학생 수가 예년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원인중의 하나로 중구내의 거주민구의 감소라는 교회 소재지역의 환경변화로 풀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강구책이 요청된다 하겠다.

외식과 모방의 가름길

백성룡 목사

사람들은 종종 외식과 모방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율법주의나 비리새적이니 하는 말들은 노식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기는데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이 한계를 벗어나서 선한 모방을 할 때는까지 이른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식이 외식이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나서면 연극이 되지만(외식이란 말이 배우들의 연극에서 유래되었기에) 외식을 외식이라 한 사실이라고 변명할 때 거만이 되어버린다. 외식이 연극이든 속임수이든 간에 그 자체는 무생명한 것임에 틀림없다. 사람들은 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생활의 반복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모방은 생동적인 면이 있기에 예술 창조에 근원적인 힘이라고까지 말한다(아리스토텔레스). 엄밀하게 따져서 창조라든가 창작이란 말이 사람들 간에 쓰여질 때는 원형에 대한 모방을 의미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사람들의 삶의 동작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에 접근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일차적으로 모방에서 출발하여 궁극적으로 동화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외식을 배척하는 종교다. 그리고 선한 모방에서 그리스도화한 생활로 자신을 승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나를 본 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화한 신앙인의 형상에 있어서 자신을 정경다라트 삼으라는 것이자 마음 모방에 있어서는 말은 아니다.

이왕조제의 이야기 한 토막이 좀더 설득있었기에 여기에 소개해 본다. 어느 함급이었던지는 모르지만 임금님께서 개성에 행차하셨을 때 한 청년이 어머니 소원을 풀어 드리기 위하여 불쓰시고 병든 어머니를 업고 상감을 멀리서 뵈게 하려는 것이 왕에게 알려졌다. 왕은 노파의 근왕심(勤王心)과 이들의 효성에 감탄하시어 후한 상을 내리셨던 것이다. 그런데 며칠 후, 환

궁하시던 날 개성복문밖에 사는 한 효청년의 건넌의 소문을 듣고 자기 어머니를 업고 건넌 효자 청년이 있던 자리에 나와 서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시종신하들은 분노하여 당장 처단하시도록 명을 기다리며 간하였던 것이다. 불효자식이 효자인데 한 일이든지, 임금님의 하신품을 탐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생각이 깊으신 상감께서는 불효자식이 효자 흉내 한 빈넌 것이 무어 그리 잘못이 되겠느냐라고 하시고 건넌 효자청년과 같이 하사품을 내리시고 이제부터 부모님 잘 섬기라고 분부하셨다는 것이다. 그 후 그 청년은 개과전신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다(세필근지: 이야기 철학에서).

무엇이 외식이며 무엇이 모방이나? 이 이야기에서 아리송한 것 같으나 왕은 불효청년의 처사를 효자의 모방으로 보았고 신하들은 외식 곧 연극으로 보았던 것이다. 연극치고는 좀 지나친 것이라 여겼기에 왕은 모방으로 보았던 것이다.

모방도 가지가지이겠지만 「스게와」의 일곱아들과(행 19:14) 같이 「선지자 노릇」(마 7:1)한 문법자와 같지 않다면 신하게 보아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 경건의 능은 고상하고 경건의 모양마저 없어졌다고 한탄스런게 말하는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지금이 아닌가. 경건의 능이 없는 데야 그 모양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 하는 생각부터 지워진 시대가 되어갔다는 데서 그 말은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라지를 뿜으려다가 알곡을 뿜는 것으로 외식을 규탄한 나비지 선한 모방까지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선량한 진리의 타수자의 도덕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양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교회 부목사>

<2페이지에서 계속>

② 목사님과의 대화를 희망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구는 목사님과 좀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장소(성당일)를 원하며 또한 그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하다. 목자와 양의 사이에 너무 거리가 있어 있는 것 같으며 그것은 역시 대화의 부족 때문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각부에서는 목사님을 가끔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넓히기 위하여 하고 있다.

결 언

내일이 있는 자는 오늘을 힘 있게 산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심혈을 다 기울이지만 내일을 보며 자라나고 있는 구원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일이다. 그런데 또 하나 더욱 이상한 것은 비교적 전보

적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어린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으며 막대한 물질 및 인적자원을 투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들을 키워내으로써 그 과정을 마치게 한 후에 이제껏 그야말로 비로 내일부터 그 교회의 기둥들이 될 청소년들을 향하여서는 교육부재라는 모순된 현상이다. 한 교회가 집사와 장로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니, 청소년들의 말에 무관심하여 그 귀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참으로 내일을 모르는 우매한 처사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이 바라는 유구가 무엇이며 그들에게 있는 문제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비로 진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시기의 청소년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일꾼으로 양성해낼 수 있는 교육의 부단한 연구와 과감한 개선이 있어야 하겠다. <본교회 교육전도사>

□ 사 설 □

1974 년 단기수련회를 보고 나서

하나님의 귀한 뜻에 따라 1953년 창립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이래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1963년에는 설립 당시 18명의 교인이 1,400여명으로 급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였다.

이같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우리교회가 「천국 일꾼」양성과 「해의 복음선교」를 교회 사업 목표로 진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이것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적절한 목표를 세우시게 하였던 것도 역시 오늘의 증현에 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확신한다.

1973년으로 20주년을 맞아 우리는 성년으로서의 자각과 함께 한국 교계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1974년에 들어서며 실시된 일련의 단기수련회는 증현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껏 역사하여 오신 것처럼 새로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년 증현에 베푸신 주시는 언단의 기회라고 또한 믿는 것이다.

이같은 1974년 단기수련회의 성과는 첫째 교육과 훈련의 대상이 교회의 일부에만 국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교인 전체를 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거 볼 수 없었던 종합적인 훈련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교우가 보다 더 뜨거운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 깊이 상고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족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셋째 우리 교회와 같이 큰 교회에서는 행정체통의 선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하 연결지대로서의 임원들의 위치가 중요함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전보다 더 구체적인 임무수행 방법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후일을 위해 지적한다면 첫째 2개월 사이에 10여가지의 수련회가 연속적으로 개최되어 후반에 가서는 지루한 감을 면치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일중 행사에 균형있게 분산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기능을 요하는 강의는 전문적인 이론강의보다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강의가 되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에서 배우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허사다. 이번 수련회가 얼마나 성공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얼마나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가르치시어 깨닫게 하신 주여, 우리로 행하게 하소서!

여가 선용

이준교 집사

두달, 동안의 긴 겨울방학이 끝났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긴가진 휴가기간이었습니. 해마다 맞이하는 방학이지만 그러나 금년만은 예년과는 좀 다르게 그야말로 보람있는 휴가모지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책도 좀 많이 읽기도 하였고 그동안 다 하지 못하였던 일들도 끝내보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방학을 다 보내버리고 난 지금의 심정은 너무나 허전한 감입니다. 무엇 하나 이렇다 하게 한 일 없이 그저 그럭저럭 보내버리고 말았다 봅니다. 그렇다고 가족들과 같이 여행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제가 군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 길이 군무하던 한 친구가 일가(경기 휴가)를 마치고 귀대하였을 때입니다. 휴가기간 동안 무얼하였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친구 대답이 이러하였습니. 한 미친동안을 집에서 공부한 휴식을 취하였고 그 나머지 한 보름간은 일을 하였노라고 했습니. 그때 마침 지금의 조흥은행 본점을 신축한 때였는데 거기에서 노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래와 자갈을 운반하는 일을 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은 돈으로 동생의 학비를 보내어 주고 왔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가」라는 말을 가끔 사용

합니다. 또 「여가 선용」이라는 말도 하곤 합니다. 여가(Leisure Time)라는 말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여가란 생계 유지의 활동 또는 학업 활동 및 생계 유지의 활동을 위해 소비되지 않는 시간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바라는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가를 선용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교육에 있어서 빼놓지 못할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가를 선용한다는 것은 여러 면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

우리는 언초가 되면 모두 다 행복의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시간을 잘 이용하여 일하고 보람된 행복을 보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경우 언발에 거는 지면년의 자신의 게으르고 불성실 하고 또한 무능함을 후회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다시 결심을 하며 작오를 하곤 하는 것이 나 지선일이 이것이 또한 사실이 아닌가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형과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성서의 교훈이요, 지혜자의 올바른 생활원칙에 금될 것을 방학을 또 한번 무도하게 보내버리고만 나저심을 돌아보며 또 한번 「여가 선용」이라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대림부 교사>

기
자
석

○ 74년 단기수련회 참가자들의

배우분이 호기심과 기대에 찬 표정을 띠고(得도) 앉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아 두눈도 더러웠어 어디 첫출애 때부터라. 이제 처음 시작인 것을...

그때도 성년수련회(말)를 첫날 이 클라해서 듣기도 하였던 「있노라」하면 「네가 저러니」 「조심」 합시다. 이러한 거야 앞으로라도 담임회 계속되어야겠지만 좀더 정성과 노력을 따져 알차고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이런 일을 위한 실무자들의 훈련, 말, 하는의 상이 크게 기대에 걸릴 부림소.

○ 「나는 시간강사가 싫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부장에게 보낸 편지의 일면이다. 누가 학생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주었는가?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교사자신에게 누구보다도 교사자신에게 잘 알려라.

교사가 다루고 있는 대상은 생명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교사자신을 매수하지 않게 어진 만큼 감정이 풍부하게 되리라.

○ 「대통령도 불린다」는 우수·김철을 저널리스트 오대다. 불바람의 혼동과 함께 축축해진 대지의 냄새가 한결 생동력을 느끼게 한다.

○ 한동안 침묵했던 「충현」자가 편모를 따져 세물계 선을 보인다. 우리교회의 조직과 모든 제도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한 태도 소중했음을 모두가 통감하리라.

○ 보다 깊은 이해와 지원 그리고 관심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설의 요철의는 것이다.

△수▽